

요약 및 정책건의

I. 연구의 개요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외활동이 확대되고, 여기에 UN사무총장을 배출함에 따라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보다 비중 있는 역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.
-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유치는 국력의 상징으로 고용증대, 국제회의 개최 등 경제적·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음.
-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제행사와 각종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이 동북아 중심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제사회에서의 중심역할을 위해 서울의 경쟁력을 활용해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임.

2. 연구의 범위 및 방법

- 국제기구의 공간적 분포와 효과를 조사하고, 국내·외 유치현황을 파악하여, 서울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.
-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계획을 연구하기 위해 2008~2010년에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국제회의를 조사하고, 국제기구의 유치가능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을 제시함.
- 국제회의 조사는 시정(서울시 핵심사업), 순환(매년 주기적 개최여부), 중앙정부(중앙정부 주도 및 참가), 고유(국내적 특화도) 등 정책기준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함.

II.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

○ 서울시가 유치가능한 국제기구 분야는 IT산업, 기후변화, 환경, 관광으로 조사되었으며,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문화·예술, 디자인, 녹색도시 분야가 추가됨.

- IT 산업에 관련된 국제회의로 제13차 아시아·태평양설계자동화학술대회, 제22회 국제액정학술대회, 국제산업정보공학학술대회, ICANN연례회의가 선정됨. 한국의 IT산업은 이미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은 상태로 IT산업과 밀접한 국제기구의 유치를 추진함.

- 기후변화에 관련한 국제회의로 C40기후리더십그룹국제회의가 선정됨. 기후변화는 국제적 관심 대상이며,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대응과제임. 특히 기후변화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담당국제기구가 필요하므로 서울은 동북아지역담당 기후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할 것을 제안함.

- 환경관련 국제회의로 제3차 아시아·태평양환경포럼이 선정됨. 환경관련 국제기구는 현재 포화상태로 이러한 기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. 결국 국제적 규모보다는 동북아 및 아시아·태평양지역으로 한정하여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관광관련분야에는 제9차 관광진흥회의, 제3차 한·중·일관광장관회의, 아·태투자박람회국제컨퍼런스가 선정됨. 이 분야는 한·중·일(베이징-서울-도쿄)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추진되어야 국제관광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하며, 관련 국제기구는 지리적여건이 유리한 서울에 유치할 것을 제안함.

- 문화예술분야는 한류를 통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태로 이를 활용할 것과 동양적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를 한·중·일의 중심인 서울에 유치할 것을 제안함.

- 디자인 및 녹색도시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, 현대도시의 기능을 고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서울의 매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함. 도시의 기능 및 도시환경은 국제도시들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며, 급성장을 통해 성공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시를 계속적인 발전모델로 제시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를 추진함.
- 실행계획으로는 국제연합대학(United Nations University) 훈련센터의 하나인 ‘GIST(Global Institute for Societal Transformation)’ 창설과 ‘동북아시아지식정보센터(Northeast Asia Knowledge & Information Center)’ 설립을 건의함.
 - GIST는 사회변화 및 전환을 주요핵심 과제로 정함. GIST 창설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작업을 추진할 TF팀 조직과 함께 국제연합대학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창설방식을 제시함.
 - 동북아시아지식정보센터의 서울 설립은 동북아시아 정세성에 관한 지식정보의 수신·발신역할을 수행함. 이 센터는 신설국제기구로서 한·중·일이 주도하는 동북아연구기관의 형태가 적당함. 세계석학들의 영입을 통해 이 기구의 인지도를 확립하여 설립초기에 전체적인 위상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연구센터와 교류를 통해 국내 연구 인력의 활용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함.
- 이상의 국제기구 유치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양성, 국제도시화, 협력적 거버넌스, 국제기구의 효율적 관리체계 등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.